도, 도민 인권 존중 · 보호 정책에 매진

예방적 인권친화 행정체계 구축… 인권보호체계 구축 ·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인권보호 강화

인권협력 · 교육 ·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으로 인권문화 확산 등 더 촘촘한 인권정책 추진키로

전북도는 올해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더욱 촘촘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9일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예방적 인권친화 행정체계 구축 △인권 보호체계 구축·권리구제 강화 △인권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목표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는 인권 증진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인권친화도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인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활성화해 관련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등 지역내외 협력체계를 활용, 인권도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 제도 내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기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내에 산재된 의미있는 인권역사 현장을 발굴·조사해 인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도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권지도 제작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의 인권침해·차별을 살피기 위한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 도 인권조례 개정을 통한 도 체육회 등 조사대상기관 확대에 따라 전라북도 조사구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14개 시·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침해·차별 관련 제보 등 활발한 활동으로 생활 속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 및 관련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인권관련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통해 인권존중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도내 인권단체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인권옹호자포럼, 인권문화축제 등 참여형 인권행사를 개최하고, 인권캠페인 및 공연 등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권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수준높은 인권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인권작품공모전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촘촘한 인권정책과 보호체계 구축,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로 모든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어촌특화지원센터, 해수부 평가 '최우수상'

현장 밀착형 지도로 문제 해결 · 어업유산 자원 발굴

포상금으로 어촌마을에 필요 생활물품 전달 · 격려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국 10개 센터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어촌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특화어촌을 육성하는 기관이다.

사업성과 평가회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 10개* 센터의 조직역량,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했다.

전북,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센터는 지난해 현장 밀착형 지도로 마을별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어촌마을 기초조사에서 어업유산(백합잡이 그레어구, 새우잡이 장태어구)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전북도와 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군, 학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어촌특화 상품개발, 전북도청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어촌마을 자원발굴,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최우수상(고창 만돌) 수상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최우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은 어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으로 구입해 전달·격려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센터는 올해에도 어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 어촌특화 역량강화 교육,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어촌마을이 '찾아오는 어촌, 함께 살기좋은 어촌, 성공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지속 · 발전 · 회복 · 탄력 생태환경 조성

4대 과제 중점추진… 지구온도를 낮추는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힐링생태 공간 조성

유해환경 · 산림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이용가능한 물관리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회복·탄력의 생태환경 조성'을 올해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지구온도를 낮추는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해 나가면서, 균형있는 생태·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에게도 사람에게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가계획과 연계하면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참여공동체를 육성하고, 탄소포인트제와 1회용컵 없는 거리 참여 확대, 그린웨이 환경축제 개최 등 도민이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상생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 등 생태자원의 국제브랜드를 확보하고, 국립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 등 동부산악권 힐링·생태 기반 조성을 통해 생태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견인하고, 생활속 유해환경과 산림재해로부터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환경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해 사업장부담은 완화하면서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여 자율환경 개선을 꾀하며,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4등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 이용가능한 물관리도 추진한다.

물 전문기관인 K-water와의 상생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설계착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요롭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 이행 선도, 힐링생태 공간조성,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도민안전 확보,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이용가능한 물관리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 뽕주, 중국으로 수출한다

부안강산명주 -상하이 추다오 유한공사, 계약 체결식 진행

전북도중국사무소는 9일 오전 부안의 강산명주와 중국 상하이 소재 추다오 공잉리앤커지 유한공사 간 수출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전북도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는 9일 오전 부안의 강산명주와 중국 상하이 소재 추다오 공잉리앤커지 유한공사(이하 추다오)간 수출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청와대 만찬용 술로도 선정된 부안강산명주의 '뽕주'는 이번 계약(연간 약 80만 불 규모)으로 3월 중 우선 3만병(약 11톤)이 수출될 예정이다.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안의 강산명주(대표 이천철)는 오디, 누에, 보리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 주조회사다. 중국사무소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21년에도 뽕주와 복분자주의 중국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한 바 있다.

수입업체 추다오(대표 현용군)는 2021년에 설립된 중국 내 무역·유통·물류 업체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중국 내 시장을 넓혀가는 전도 유망한 기업이다. 특히, 중국사무소와는 도내 기업제품 수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어 향후 도내 우수제품의 중국 내 유통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순택 중국사무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중국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 협약식은 큰 파도가 지나간 직후 처음 체결하는 수출 협약식이라 의미가 더욱 크고, 이를 계기로 도내 우수제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도내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등… 도내 필수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기여

9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2023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워크숍'.

전북도는 '전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과 함께 9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도내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및 관련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역량 강화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됐다.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결과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 토론이 이어져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 도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지원단은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정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옥 교수〉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음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아침마당, MBC TV, JTV, TBN등 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워 빛, 빛, 빛" "스피치 스타일" 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사낭송지도사등 자격증 소유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